

여야 임시국회 첫날부터 개헌 ‘기싸움’

한국당 “협치로 분권 실현”

국민의당 “국회가 주도”

올림픽 기간 정쟁중지 결의 발발

정부 법률안 347건 제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부터 개헌 문제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청 의정각에서 회동을 하고 2월 임시국회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가 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지난 1년간의 논의가 있고, 이제는 조문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2월에 속도감 있게(개헌)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법개정,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위가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갖고 개헌에 접근하고 사법개혁을 리드하는 형국이 아니라 국민적 소망인 제왕적 통제를 종식하는 분권개헌을 꼭 성공할 수 있는 협치라면(한국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더욱더 선도적으로(하고), 진정한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개헌 논의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권력구조가 빠진 개헌은 안 되고,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해



“한번 잘 해 봅시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 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야 한다”며 “민주당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 당론화를 공식화하면 헌정특위에서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 민주당이 길을 터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선거구제 개편은) 비례성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희망하지만, 합의가 어려워면 동농복합형 중대선거구 제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며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합쳐했지만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에는 실패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

대표는 “2월 국회를 통해 한국당은 방송법, 민생일자리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그동안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법들의 적극적인 처리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문은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세균 의장이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국회가 정쟁을 중단했던 예를 들며 해당 결의안을 제안했지만 제 1야당인 한국당이 “검토를 해봐야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 참석자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결론이 나지는 않았고 서로 좀 더 협의하겠

다는 정도로 마무리됐다”며 “세월호 참사 및 가슴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신속히 가동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이날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입법형식별로 보면 ▲법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안세법 등 전부 개정안 16건 ▲감사원법·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 개정안 313건 ▲폐지안 1건이다. 내용별로 보면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이 71건이고, 각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이 276건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北 금강산 공연 일방 취소 유감”

여야는 30일 북한이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나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만의 염원이 아닐 텐데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해련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금강산 문화행사 취소는 매우 유감”이라며 “평창올림픽 성공에 협력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을 증명한 유일한 길은 합의사항 이행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서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쟁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평창올림픽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문제 삼는 것도(야당이) 이제는 자제해야 한다”며 “정쟁을 중단하고 평창올림픽을 범지구적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함께 협조해

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비판을 고리 삼아 대어(對興)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는 평에서 “북한의 약속 파기와 제멋대로 행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며 “지금이라도 북한의 ‘건군절 핵퍼레이드’ 취소를 요구하고 약속 파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며 북한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남북 합의사항에 대해 취소 등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언고자 한다면 오산”이라며 “평창올림픽 특별위원회를 강화하고자 했다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송기석 의원 유지 여부 다음주 판결

‘불법 선거자금’ 내달 8일 대법원 선고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 지을 대법원의 선고 일정이 잡혔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A씨의 상고심 판결이 다음 달 8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송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홍보 문자메시

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 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1, 2심은 “선거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홍보원을 등록도 하지 않고 수당을 줬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가 6·13지방선거와 함께 열린다. 광주 서구갑 6·13재선거에는 4~5명의 입지자들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관위 ‘불법 선거자금 전담반’ 뜬다

지방선거서 첫 운영...공천부터 선거비 정산 과정 추적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공천 과정에서부터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 정산 때까지 불법 정치자금과 리베이트 자금 여부를 추적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선관위가 후보자 추천 관련 자금범죄 전담팀을 신설·운영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어서 향후 활동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목적으로 한 금품수수 행위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7월까지 ‘후보자 추천 관련 자금범죄 예방·대응팀’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는 일선 시·군 선관위 단속 직원 30여명을 중심으로 예방·대응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불법적인 공천 자금이 오고 갔는지 여부와 예비후보들이 지지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 등의 제작과 관련한 업체로부터의 불법 리베이트 수

수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 정산에서 불법적인 회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선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포괄적으로 조사한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선관위는 불법 공천자금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밀착 면담을 통해 공천과정에서 비리 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직원을 중심으로 선거구별 정보수집, 분석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

수여부를 파악하고, 선거가 끝난 뒤 후보별 회계보고서를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비정상적인 선거비용 처리 여부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예방·대응팀 신설·운영은 적발보다는 효율적인 예방과 불법 행위 차단이 목적”이라며 “자금 범죄 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전남의 경우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천 관련 불법 자금 수수 행위에 대한 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신고 포상금,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일기자 cki@

<h3>토지 매매 (금호동)</h3> <p>상무지구에서 서광주역 가는길</p> <p>(도로 접합) 현재 자연녹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획도로 확장예정 ② 진입도로 용이(자제창고,식당 가능) ③ 평당 240만 <p>◆ 매매가 : 13억5천8백</p> <p>010-6670-9800 062)382-5500</p>	<h3>무안 펜션 경매 추천</h3> <p>무안 망운 리조트 (툼머리해수욕장) 광주에서 40분</p> <p>최고물건 임대(월2000만 가능)</p> <p>토지 614평 건물 145평 (아파트형, 객실 13개)</p> <p>경매일:1월29일</p> <p>감정가 11억 5천 최저가 6억 4천</p> <p>010-6670-9800 062)382-5500</p>	<h3>경매교육</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론 실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할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p>경매물건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북구 신원동 용두주공아파트 (24평) 감정가 1억3천3백 → 최저가 9천3백 ② 북구 일곡동 현대아파트(24평) 감정가 1억4천2백 → 최저가 9천9백 ③ 서구 쌍촌동 광명하이츠 (상가) 감정가 5천3백 → 최저 2천9백 <p>[사무직 (여)경리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p> <p>010-6670-9800</p>	<h3>법률 경매 (주)대신경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구 내방동 (건물) 토지:80평 건물:114평 감정:3억6천 → 최저:3억6천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3) 광산구 수원지구 (원룸빌딩) 감정:7억2천 → 최저:7억2천 4) 나주 성북동 (근린주택) 감정:32억 6천 → 최저:18억 2천 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9억6천 → 최저:6억7천 6)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2억6천7백 → 최저:1억8천7백 7) 전북 군산시 평화동 (근린상가) 감정:12억1천 → 최저:4억1천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5억 → 최저:3억8천 9) 화순 도곡면 천암리 (무인텔) 감정:37억4천 → 최저:20억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6억5천 → 최저:2억3천 11) 북구 신안동 (주유소) 토지:232평 건물:114평 감정:14억5천 → 최저:14억5천 <p>A.P.T · 주택 · 공장 · 토지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②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③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④ 서구 유촌동 벚들주공 아파트 (24평) 감정 2억 → 최저 1억 4천 ⑤ 북구 운암산코아루베시안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⑥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⑦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56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⑧ 서구 마름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9천1백 ⑨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4억 ⑩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대지) 감정 7백 → 최저 5백 ⑪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숙박,콘도) 감정 1억4천5백 → 최저 7천6백 ⑫ 전남 영암군 삼호읍(공장) 감정 14억8천 → 최저5억3천 <p>010-6670-9800 062)382-5500</p>
--	---	--	---